

## 동구, 구청 내 계단에 스마일라인 설치



“스마일라인에 들어서면 환한 미소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요”

대전 동구(구청장 이상우)가 직원들에게 친절의 기본인 미소를 실천하기 위해 스마일라인을 설치해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로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친절과 배려로 가족같이 맞이해 편안하고 따뜻한 구정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9월 7일부터 구청 본관 내 계단 정면에 환한 웃음은 행복의 저금통장입니다’ 등 웃음에 대한 명언과 함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로 총 40곳에 스마일라인을 설치했다.

이에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업무 시간에도 스마일 라인을 통과할때 주변 동료

및 민원인들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등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구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분간 친절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방법과 친절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아침 방송을 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구 민원봉사실장은 “스마일라인은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고객만족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해 가장 친절 한 구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구, 제31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산자부표창’ 수상

대전 동구(구청장 이상우)가 9월 11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31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생산성혁신 부문에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20일 서류심사를 거쳐 6월 28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심사단의 심사결과 ‘생산성혁신부문’ 수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는 △리더십과 의사결정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비전 실현 전략의 수립과 전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계증진 등 총 8개 부분으로 나눠 실시됐다.

특히, 리더십 부문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한 주민정보센터 운영과 e-재래시장 및 정보화마을 운영 등이 큰 성과를 나타냈고, 고객만족부문에서 건강목욕탕운영과 밑반찬전달서비스 등 자원봉사활동의 전 직원 참여 및 활성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장우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동구가 혁신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격려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끊임없이 행정능률 향상과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전 동구, 도서로 외교역할 '톡톡'



▲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교류협력도시인 호주 파인리버시에 '사랑의 도서' 600여권 발송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9월 18일 교류협력도시인 호주 파인리버시에 '사랑의 도서' 600권을 발송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 청장이 지난 7월초 호주 파인리버시를 방문, 도서관을 찾았으나 외국 서적에 비해 한국서적이 너무 없어 한국도서를 보내 양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현지 교민에게는 모국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8월초부터 2주간 관내 도서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수에 나서 영아용 그림책에서부터 문학, 교양 등 전문서적까지 총 1000여권의 도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06년도 이후 구입한 도서 중 내용 및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 600여 권을 선별해 발송하고, 나머지 도서는 관내 도서관에 기증키로 했다.

이장우 동구청장은 “금번 도서 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준 직원, 독서회원과 문화강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호주 교민들이 도서를 보고 자긍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뿌리공원 성씨별 조형물 확대 설치

- 69기 확대(기존 72기)/8월말까지 신청접수 -

· 대전시 중구(구청장 李殷權)가 지난 97년 11월에 성을 주제로 자신의 뿌리를 되돌아 봄으로써 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전국 최초 “효” 테마공원의 성씨 조형물이 확대 설치된다.

· 이는 공원조성 이후 성씨별 조각품을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문중이 많아 확고한 효 테마공원으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72개 성씨 조형물에서 69개를 추가 설치한다.

· 이를위해 중구청 공원과에서는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9월중에 기반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성씨별 조형물 확대 설치하는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제공은 물론 경노효친사상 함양과 조상의 뿌리에 대한 인식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

· 뿌리공원은 그동안 성씨별 조각 공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가족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관람객들에게 성씨별 조형물 중심으로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또한 가족나들이로 자기 성씨의 유래를 찾아보며 조형물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휴식공간과 산책로 등과 선

인들의 지혜와 얼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국궁장까지 건립되어 단순히 보기만하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적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이에 지난해만 해도 뿌리공원을 찾은 사람은 약 50만명으로 월 평균 4~5만여명에 이르러 잠시 스쳐가는 공원에서 머물고 싶은 공원이 되고 있다.

· 중구가 뿌리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6월~10월까지 코스모스 꽃단지를 비롯해 4월에는 영산홍 꽃 축제, 3월~12월까지 계절별 꽃식재와 애완용 동물 등도 볼수 있으며,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까지 운영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고 싶고, 찾고 싶고, 즐길 수 있는 “효”를 주제로 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펼쳐 우리의 전통사상인 충, 효의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칠월 칠석날에 부사칠석놀이 유래비 제막식

- 부용처녀와 사득총각이 사랑한 부사샘에서 칠석놀이보존회 선 보여 -

·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 부사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사칠석놀이 보존회(회장 김준헌)에서는 오는 8월 19일(일) 음력 칠월 칠석날을 맞아 전통 민속놀이인 부사 칠석제가 펼쳐진다.

· 구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부터 보문산에서 선바위 치성과 부용제를 지내고, 10시에는 부사동 부사다목적복지회관 샵터에서 이 지역 주민과 민속놀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하는 이 놀이는 선바위 치성과 부사샘 치우기, 부용과 사득의 합궁놀이, 놀이마당 등의 민속놀이를 선 보이며 10시 30분에는 부사칠석놀이유래비 제막식 있다.

· 이번에 설치하는 유래비는 부사칠석놀이보존회에서 전통민속놀이인 부사칠석제를 계승, 보전하고 민속문화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갖는 이 놀이는 매년 윗말과 아랫말주민들이 모여 마을내에 있는 부사샘을 청소하고 주민 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로 치뤄지고 있다.

· 이 보존회는 지난 1992년 중구 민속놀이로 선정되어 1993년 대전시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1994년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회원 120여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 부사 칠석민속놀이는 이 마을의 지명설화(地名說話)에서 비롯된다. 백제시대 때는 이 마을이 윗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있었다. 본디 두 마을은 사이가 아주 나빴다. 그런데

윗말에 사는 부용(芙蓉)이라는 예쁜 처녀와 아랫말의 사득(沙得)이라는 총각이 서로 사랑을 나눈다.

· 한편 그 무렵 신라가 백제를 침략하자 사득 총각은 백제군으로 전쟁터에 나가 죽는다. 이를 알지 못하는 부용처녀는 사득을 기다리며 매일 같이 부사샘만을 보며 기다리다가 결국 뒷산 선바위에서 실족하여 죽는다.

· 마을 공동샘을 윗말에는 ‘부용이 샘’이라고 부르고 아랫말 사람들은 ‘사득이 샘’이라고 불렀으나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올려준 마을 사람들은 부용과 사득의 첫 글자를 따서 ‘부사샘’이라 결정하고 고사를 지낸 뒤 합궁놀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샘이근거가 되어 ‘부사리’라고 부르고 상부사리, 하부사리로 나뉘고 이 지명이 오늘날의 ‘부사동’으로 불리어 지게 된 것이다.



우리 지역문화 바로 알기 한미당  
【견우와 직녀 이야기】

먼 옛날 옥황상제에게는 직녀라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 종일 베짜는 일만하며 살았다. 어느 날 직녀는 은하수 건너편의 청년을 보고 첫눈에 반해 곧 옥황상제에게 달려가 그 청년과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옥황상제는 견우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터라 곧 혼인을 시켜 주었는데 결혼 후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아 둘 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이 부족해 지고 견우의 소와 양들은 병에 걸려 앓고 농작물들도 말라죽어 하늘나라가 혼란스러워 지자 땅의 세상도 어지러워졌다.

옥황상제는 몹시 화가나 직녀는 서쪽에서 베를 짜고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살도록 명령을 내렸다. 견우와 직녀는 용서를 빌었지만 옥황상제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대신 일년에 딱 한 번 음력 칠월 칠일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칠석날이다.

그러나 견우와 직녀가 일 년을 기다려 만나기 위해 나왔을 때에는 은하수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만나지 못했는데 두 사람이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본 까마귀와 까치들은 너무 불쌍해 곧 서로의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들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다리를 오작교(烏鵲橋)라고 한다.

견우(牽牛) : 견우성(牽牛星)의 준말. 은하수 서쪽에 있는 독수리자리의 수성(首星)인 알타이르(Altair)의 이름.  
직녀(織女) : 직녀성(織女星)의 준말. 거문고 자리의 가장 밝은 별인 베가성(Vega)의 이름.

## 환경관리요원이 거리의 만능해결사로 거듭나다

– 환경관리요원을 활용한 주민불편사항 7개분야 즉시해결 –

· 대전시 중구(구청장 李殷權)가 거리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속 현장을 뛰는 혁신 청소종합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금까지 환경관리요원들은 담당구역 가로 및 이면도로 청소와 주택가, 재활용품 정리 등 청소와 관련된 업무만 처리해 오던 것을 탈피하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로, 조명, 공원, 교통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장(종합)행정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거리의 만능 해결사로 거듭나기로 한 것이다.

· 그동안 환경관리요원들은 담당구역 가로 청소 및 이면도로 청소, 주택가 재활용품 배출장소 정리, 재활용품 수거 처리장소 불법 쓰레기 뒤처리, 청소불량 민간시설물 주변청소유지제도 및 정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장소 정비, 불법투기자 단속 등을 처리하여 오던 것을,

·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

에서 일어나는 7개분야 생활민원업무 해결사로 나서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환경관리요원들은 ▲청소(환경)분야는 담당구역 가로 및 이면도로 청소, 주택가 재활용품 배출장소 정리, 재활용품 수거 처리장소 불법쓰레기 뒷 정리, 청소불량 민간시설물 주변 청결 유지제도 및 정비,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장소 정비,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 ▲도로분야는 인도 및 경계석 부근의 잡초제거, 겨울철 고갯길 등 제설작업, 도로시설물(인도, 차도, 횡스, 경계석 등) 파손시 신고, 하수도,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육교 등 시설물 파손시 신고 ▲건축분야에는 공사장 쓰레기 장기방치 신고, 준공후 주변쓰레기 신고 ▲광고물분야는 현수막 게시대, 극장 지정벽보판 상태 불량시 신고, ▲교통분야는 버스승강장, 공한지 무료주차장 파손 청소상태 불량시 신고 ▲공원분야는 어린이공원등 시설물 파손시 신고 ▲기타는 상수도 파손 누수시 신고, 주민불편사항 발견시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과 전 직원을 노선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월2회 이상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 우수 요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자녀 장학금 우선 대상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등 현장(종합)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무단배포 등 불법행위는 행정당국의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주민들 스스로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며, 공공시설물을 내것같이 아끼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만큼 주민들 스스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내동네·내공원 가꾸기 협약식

- 9월 5일 오후 3시 중회의실 1공원 책임관리제/철도시설공단 등 6개 학교, 기관·단체 -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도심 공원을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월 5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중구청과 학교, 기관·단체 간 내동네·내공원 가꾸기 협약식



을 가졌다.

· 이날 협약식에는 1공원 책임관리제를 위해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6개 학교, 기관·단체 등이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체결했다.

· 1공원 책임관리제 협약체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흥동 데미공원, 충남대학교병원은 문화동 문화1근린공원, 대전지적공사 동·중구지사는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 중앙고등학교는 중촌동 경로공원,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중구지회는 태평2동 버드내조폐근린공원, 대한적십자봉사회 중구협의회는 은행동 목척공원 등의 근린공원은 단체별 책임하에 깨끗하고 청결한 공원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 또한 동단위 놀이터,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등 소공원 47개소를 새마을협의회(16), 자원봉사회(5), 주민자치위원회(5), 바르게살기협의회(5), 노인회(2), 자율방범대·부녀회·복지만두레(15) 등과 협약을 통해 내동네 공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정하고 늘 푸른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 중구청에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 ▲사업참여 우수기관·단체 등 인센티브 부여 ▲참여자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하고, 협약단체에서는 ▲제조작업 및 쓰레기 등 공원청소 ▲공원시설물 점검 및 안전지도 ▲공원순찰

및 청소년 계도 ▲고사목 제거, 조경수 관리 등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 구는 1공원 책임관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중순에 서대전시민공원에서 내동네·내공원 가꾸기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가위 송편 만들기 체험 행사

– 9월 14일(금) 오후2시 중구청 후생관 36명(결혼이민자25명, 여성단체 11명) –

대전시 중구(구청장 李殷權)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중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정숙)가 주관하여 중구청 후생관에서 중국, 필리핀, 태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민자 주부 25명, 중구여성단체 회원 11명과 함께 차례 및 제례의 절차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음식인 송편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

· 또한 이날 한국전례원 대전지부에서는 한국전통 명절문화 중 차례와 제례의 절차와 의미를 결혼 이민자들에게 알기 쉽고 즐겁게 설명하

고 한사람 한사람씩 직접 나와 차례상 음식을 놓고 절을 올리는 체험도 했다.

- 이들은 아직 한국말이 서툰 새내기 주부부터 결혼생활 6년차 주부까지 참여하여 추석 명절의 대표음식인 송편을 멥쌀가루를 물에 불려 직접 반죽하고, 반죽을 뜯어 이미 준비해 온 설탕, 깨 등의 소를 넣어 송편 모양을 만들었다.

- 이들이 만든 송편 중에는 옆구리가 터져 소가 나온 것도 있고, 송편 모양이 고구마 처럼 생긴것과 감자 처럼 둥근 모양 등 가지각색의 송편이 되어있었다.

- 이날 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예절에 대한 체험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

- 행사에 참석한 캄보디아 출신 팡파나(26세)씨는 “강사가 가르쳐 준대로 송편을 빚어보니 참 재미있고, 명절에 객지로 나가있는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와 오손도손 모여 정을 나누는 한국의 명절풍습이 너무 좋게 보이며, 이번 명절에는 본인이 직접 만든 송편이 차례상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 서구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 평가 최우수구 선정



▲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철새가 날아오는 갑천 등 점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서구가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에서 대전 5개구중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구가 대전 5개 자치구에 대한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업무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지난 9월말까지 대전시 자치구에서 추진한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업무평가를 실시, 배출업소 통합점검 등 지도·점검체계, 위반업소 적발 등 지도·점검실적, 영세업체 환경기술지원 실적 등 예방적 차원의 업무 활동에 중점을 둔 업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사후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실적 등 중점 추진업무 5개 분야 총 22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 엄정한 평가가 치러졌다.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를 실시한 결과 서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공해배출 및 환경관리 실태 업무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결정됐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서구는 환경오염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배출업소의 자율점검 제도를 확대하여 환경관리 능력을 높이고 위반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여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둔산 도서관 개관 5개월 지역문화공간 자리 매김

하루 평균 2,300여명, 도서대출도 2,000여권 달해



지난 6월1일 개관한 둔산 도서관이 개관 5개월 만에 둔산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건물연면적 716평에 500석의 규모로 개관한 둔산 도서관은 10월30일까지 이용자가 28만3866명으로 하루 평균 2289명이 이용했다.

이중 어린이 이용자는 8만4980명, 청소년이 9만1896명, 어른이 10만6990명으로 청소년이하 이용자들이 월등히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14만8022명, 남성이 13만5844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자료이용은 일반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6만9897명, 아동도서 이용자가 6만5634명이며 대출자는 8만7830명에 달하는 등 도서를 빌리거나 열람하기 위해 찾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관 이후 도서대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도서관 직원들의 일손이 모자라 도서 대출을 위해 이용자들이 줄지어 서있는 경우도 간간히 눈에 띄는 정도다.

둔산 도서관은 도서열람 등의 편의 제공 외에도 영화상영이나 동화 구연, 옛이야기 들려주기 등 소규모 문화행사로 이용자들의 문화적 욕구도 해소하는 등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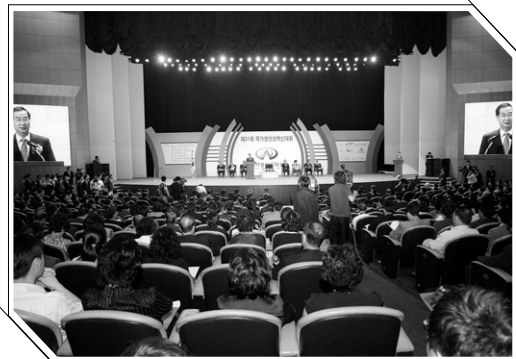
한편 둔산 도서관은 동절기인 오는 2월까지의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 3월부터 10월까지의 오전7시부터 밤10시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1층은

50석의 어린이실과 온돌방 40석 규모의 영유아실 및 동아리 방이 2층에는 중학생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80석 규모의 도서전자실과 문화행사실, 휴게실이 3층에는 160석 규모의 열람실과 94석 규모의 시청각실을 갖추고 있다.

### “서구 5년 연속 국가생산성 대상 수상했다.”

생산성 혁신부문서 지자체 최고의 상인 국무총리상 표창



서구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제31회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자치단체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번 국가생산성 혁신대회는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 활동을 모범적으로 이룩한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하

는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상과 일본의 경영품질상과 같은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정부포상제도이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실사를 병행하는 등 엄정한 심사로 권위가 높아 이번 서구의 5년 연속 대상수상은 서구가 그동안 추진해온 서구행정이 대내외적으로 평가 받았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서구는 지난 2003년 고객만족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2004년 정보화부문, 2005년 미래경영부문, 2006년 리더십부문 대상에 이어 올해 생산성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구는 현장속을 뛰는 생활행정, 성과를 지향하는 혁신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행정, 푸른도시를 실현하는 환경행정을 기반으로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의 생활화를 통해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혁신포탈 시스템을 구축해 혁신과제 제안에서 성과관리까지 자동화 시켰으며 지금까지 600여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했으며 통합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장기비전인 서구비전 2020을 실

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직종별 계층별로 교육훈련 체계를 세워 업무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생활권역별 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개발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이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생산성 혁신 부문의 대상 수상은 그동안 서구가 추진해온 혁신행정이 높게 평가 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대상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51만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07 자랑스런 서구인 선정

사회봉사 서남구씨, 문화 이이철, 생활체육부문 대전탄방초등학교



사회봉사부문 서남구씨(왼쪽), 문화부문 이이철씨(오른쪽), 생활체육부문 대전탄방초등학교(이래)



2007 자랑스런 서구인상에 사회봉사부문 서남구씨, 문화부문 이이철씨, 생활체육부문 대전탄방초등학교를 선정해 지난 10월10일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에서 개최된 제18회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식을가졌다.

사회봉사부문 서남구(48세)씨는 평송청 소년수련원 원장으로 북카페(book-cafe)운영 도서 무료대여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연간 70명 6,800만원 지급, 전통문화학교 및 예술단공연, 환경탐사캠프 운영, 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로봇경진대회 등 각종 봉사활동 전개해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살맛나는 아름다운 사회만들기는 물론 어려운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복 네트워크 복지사회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선정됐다.

문화부문 이이철(65세)씨는 서구문화원 상임이사를 역임하면서 서구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서구사와 월간 갑천문화, 서구문화총서 발간에 공헌했다.

또한 전통 민속예술발굴과 보존·전승을 위해 갑천문화제, 정월대보름제 개최와 풍물단, 민요합창단을 운영하는 등 서구의 전통적 문화와 현대적 문화의 접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생활체육부문에는 대전탄방초등학교가 체육 꿈나무 육성지도와 각종 체육시설 개방

으로 동호회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 세미나 등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도모와 쉼터 제공, 불우이웃돕기행사 개최,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회합과 지역발전, 살고 싶은 서구건설에 이바지한 바가 커 자랑스런 서구인상을 수상케 됐다.

## 유성구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평가 최우수상 수상

합리적 소비생활 등에 대한 시책 추진

대전시가 상반기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평가를 실시해 최우수에 유성구를, 우수에 서구를 선정했다.

상반기 물가관리를 위해 대전시 자치구에서는 주 1회 이상 물가동향을 파악해 현장위주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별 자체 홈페이지에 가격정보와 모범업소 등 소비자 물가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은 미조정 또는 동결했다.

유성구에서는 노인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노인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소비습관을 갖출 수 있는 시책 등을 추진하고, 서구에서는 e-mail을 이용해 시민에게 물가정보와 소비자 소식 등을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 유성구, 전국 최초로 영·유아 학습비 지원

책읽는 습관 길러주세요

유성구는 평생학습도시의 특성을 살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영·유아의 지적·정서적 발달과 영·유아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내 240여개 보육시설에 영·유아

학습비를 지원한다.

9월 14일 유성구(구청장 진동규)에 따르면 말과 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유아들에게 책을 접하게 하여 언어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240여개 보육시설에 대해 시설별 1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 및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관계자는 “호기심 많은 유아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가르쳐 탐구 능력을 키워주며 영·유아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책이다”며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유성구 “책읽는 가족”에 한승훈씨, 김영진씨 가족 선정

6개월에 800권 읽었다.



올 상반기 유성도서관과 구즉도서관이 선정하는 ‘책읽는 가족’에 한승훈씨 가족과 김영진씨 가족이 각각 선정됐다.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29일 오후 4시 유성도서관 1층 문화사랑방에서 2007년도 상반기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한승훈씨 가족(5명)과 김영진씨 가족(4명)에게 책읽는 가족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가족은 2007년 상반기 동안 수백여 권의 책을 읽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을 즐겨 읽고 도서대출과 반납규정을 잘 준수하고 도서관 주관 각종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도서관 이용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고 도서관측은 선정배경을 밝혔다.

한승훈(송강동)씨 가족의 경우 일가족 5명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에 무려 820여권의 도서를 대출해 다독가족임을 과시했으며 한승훈씨의 처 이양옥씨도 초등학교에서 1일 사서로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는 독서광이다. 이에 뒤질세라 자녀인 지혜, 채린 양 등도 다독을 통해 인상깊은 책을 친구들에게 추천도서로 권장하는 등 온가족이 책읽기에 흠뻑 빠져 있다.

또 김영진(노은동)씨 가족도 올 상반기동안 약 370여권의 대출실적을 자랑하는 다독가족으로 주말이면 온가족이 도서관으로 직행해 책을 읽고 뒷정리까지 마무리하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가족이다.

## 원자력(연) 우리늄 유출 대책 촉구 진동규 유성구청장 성명서 발표



유성구는 8월 1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리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원자력연구원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는 “원자력연구원은 2004년 5월 하나로(연구용-원자로)중수 누출사고와 2005년 5월 방사성 요드 검출사고, 2006년 11월 하나로 작업자 방사능 피폭사고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핵연료로 쓰이는 우리늄 유출사고를 일으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측은 사고가 날 때마다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하지만 이번 우리늄 유출사고에서 보듯 발생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사실이 밝혀져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자력 연구원과 과학기술부, 국회, 대전시 등에 ▲원자력연구워너 인근에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조기 착공 ▲대전



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와의 역할 강화 ▲관리 책임자 교육철저 등을 요구했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구는 이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리나라 유출사고를 계기로 조만간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시설 방문과 감시활동을 펼치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유성구’ 제외

### 진동규 구청장 ‘추가해제 촉구’

지난 9월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대전 유성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진동규 유성구청장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진동규 구청장은 10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 제외된 것은 유성구의 심각한 경기침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고 추가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진동규 구청장은 특히 “유성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물상상승률, 미분양주택 보유현황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가리는 모든 지표를 따져 보더라도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전과 충청권 9곳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동규 구청장은 또 “유성구가 지리적으로 행정도시 주변에 있어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투기 재연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논리는 너무도 불합리한 판단이며 경제희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지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결과”라고 항의했다.

진동규 구청장은 그러면서 “유성구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제시 없이 지난 6월에 이어 또 다시 선별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대덕구, 제6회 계족산 마라톤 대회 성료**  
전국 마라톤동호인 1,000여 명과 가족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여



대덕구가 주최하고 대덕구생활체육협의회와 대덕구마라톤클럽이 주관한 제6회 계족산 마라톤 대회가 26일 장동산림욕장 임도 일원에서 전국 마라톤 동호인 1,000여 명과 가족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남자부 우승은 양석철(37 전북 무주 무주읍)씨가 54분 56초 기록으로 차지했고, 여자부는 이종애(47 경기 수원 장안 천천동)씨가 1시간 07분 33초의 기록으로 1위에 골인했다. 이밖에 최고령자 부문 조수천(77) 연출상 최윤희(남 46), 이에경(여, 47) 단체상은 대전 사이언스마라톤, 아침편지마라톤 동아리, 한라공조마라톤 동호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장동산림욕장내 숲속문고에서 출발하여 계족산성을 축으로 능선을 따라 잘 다듬어진 임도 코스 14.5km를 달리면서 산림욕

도 즐기고 온몸 가득 생기를 충전하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다.

참가자들은 완주 후 먹는 잔치국수와 인삼 막거리가 한껏 행복감을 불러 넣어 주고, 지난해 사라진 맥주 시음회 시간이 올해 다시 찾아와서 달리는 기쁨과 함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전 마라톤클럽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마라톤에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주신 협력기관과 대전마라톤클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9월 5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학습도시인증서와 동판을 받았다.